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 담아야

‘광주시의회, 주민대의기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냐’ 개원 30주년 토론회

인사권 독립·주민참여권리 강화 등 변화 따른 의회 운영
행정부 견제·지역정책 제안·윤리적 책임 역량 강화해야

광주시의회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 견제와 지역정책 제안,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연 정책 토론회에서 기초발제자로 나선 정순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광주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 같이 제시했다.

정 전 위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시·구의원과 시민단체, 시민,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 강화, 다양한 지역문제 대응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정순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총 3개 주제에 따른 발제 및 토론도 이어졌다.

제1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으로, 강인호 조선훈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을, 민형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효율적 지원방안’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기우식 참여자치21

와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와 시교육청, 광주전남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시·구의원과 시민단체, 시민,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 강화, 다양한 지역문제 대응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정순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총 3개 주제에 따른 발제 및 토론도 이어졌다.

제1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으로, 강인호 조선훈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을, 민형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효율적 지원방안’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조기선 광주CBS 국장이 참여했다.

제2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으로, 이영철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배타적 자치입법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보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섰다.

제3주제는 ‘광주시의회의 회고와 전망’으로, 좌장은 한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발제는 김동찬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각각 맡았다.

김동찬 전 의장은 발제를 통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했다”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히 돌아보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의회로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주제 토론에는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소진광 가천대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김용집 의장은 “32만 명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3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마친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2호점 개소

지원1동에... 주민 소통 역할

광주시가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2호를 개소했다.

13일 동구 지원1동에 문을 연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센터’는 지난 2일 개소한 ‘침단마을 에너지 전환 카페’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마을에너지전환연대는 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 청소년, 주민을 위한 교육, 홍보, 체험 등

인식개선 사업 ▲지역자원 조사 및 연구 활동 ▲단독주택 대상 에너지효율화 리빙랩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소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하다.

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평가를 거쳐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시민햇빛발전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전남도내 100곳 518개 제품

전남도는 올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심의회를 열어 도내 100개 업체 518개 제품을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으로 선정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히 심사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남산 원료 사용 여부, 안전성,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선정한다. 해당 업체는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전남도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주요 제품은 나주 농업회사법인 문스판(주)의 포기김치, 구례 농업회사법인의 복내리는 당산나무(주)의 김부각, 고흥 자연자력유한회사의 자연락 배추김치, 화순 농업회사법인 화순파프리카칼국수(주)의 황금물참살국수멸치맛 등이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되면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비, 자가품질검사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대표 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에 우선 입점 혜택도 있다.

전남도는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용산역, 광주 유스퀘어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LED 광고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펼쳐 판촉을 이룰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기원 “침수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벼에 대해 적극적인 방제를 취해달라고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3일까지 침수 벼에 대한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공동으로 침수 피해 벼에 대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전남농기원은 시·군, 농협과 함께 모두 94억원의 방제에 투입기로 했다.

지난 5-9일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해남, 진도, 강진, 장흥 등을 중심으로 2만4798ha의 논이 침수

피해를 봤다. 12일까지 피해 면적의 35%인 8860ha에 대한 방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농기원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각종 세균성 병과 먹노린재, 흑명나방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수 당한 벼는 작물이 연약해져 특히 병해충에 취약하므로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침수 벼에 대한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안전한 광주

이용섭 시장 “통합안전시스템 마련·안전점검단 상시 운영”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근본적, 종합적, 체계적인 통합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건물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한 달여 만에 어제 운영을 종료했다”며 “소중한 시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책감과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마지막 헌화, 분향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시장은 사전 예방, 종합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등에서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고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지시 사항 또는 개별 대응 위주로 단편적,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하려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65 생활민원, 120 콜센터, 재난 안전 상황실,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의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체계, 기동성 있게 대응하는 현장 점검 시스템,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는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당당한 노년

광주시, 내년까지 어르신일자리 3만개로 확대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르신 특별주간’ 2일차를 맞아 어르신일자리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13일 서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5개 자치구 시니어클럽과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니어클럽들은 ▲일자리 참여 대상 사전 안내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신규 사업 일자리 홍보 ▲일자리 수요처와 업무협력 ▲학교갈고미 사업 배정인원 기조 조정 ▲신규 시장형사업 추진 기금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우리동네 낭만국수’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근무환경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시장형 사업단 배정인원 확대와 자치구, 공공기관 내 시장형 사업장 확보, 노인일자리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신체·정신적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복지서비스”라면서 “다양한 기능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당당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